

‘일월오봉도’ 모자이크로 만든다

<日月五峯圖>

세계 최고 모자이크 학교인 프리울리주립 모자이크학교 대표 교수와 지역 작가들이 조선시대 전통 민화인 ‘일월오봉도’를 모자이크로 제작한다.

이탈리아 전통 모자이크 기법과 남도 예술훈이 만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예술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모자이크 공동창작’이다. 또 이번 행사를 토대로 광주에 프리울리 아시아 분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디자인센터와 지역 디자인업체인 (주)인스나인은 오는 13~22일 화순군 등면 운동리 (주)인스나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에서 ‘제1회 프리울리 대표교수 초청 모자이크 워크숍’을 열고 이탈리아의 전통 모자이크 기법으로 ‘일월오봉도’를 제작한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의 멜라베도 바에비나 교수와 데 레오니 크리스티나 교수 등 2명의 전문가가 직접 작업을 하게 된다.

국내작가로는 황인옥(공예), 이종호(회화), 신성주(도예), 이기원(조각), 김 원(판화), 이명진(판



伊 모자이크학교 교수·지역 작가들 공동창작

13~22일 화순 인스나인서 ‘모자이크 워크숍’

프리울리 모자이크학교 분교 광주 유치 추진

화), 조사라(회화), 박아름솔(디자인), 안경미(도예), 유봉순(디자인) 등이 참여한다.

이탈리아 작가들의 지도로 작업이 진행되며, 작품은 조그만 유리를 붙여 가로 300cm, 세로 160cm 크기로 제작된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개되며, 을가을 열리는 ‘2010 서울디자인마당 국내디자인산업전’ ‘20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도 출품된다.

이탈리아 유명 성당들의 모자이

크 행사를 기획한 박유복 (주)인스나인 연구소장은 “회화, 조각, 디자인 분야의 지역 작가들이 모자이크라는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지난 1922년 설립됐으며, 전통적인 방식과 소재의 작품부터 현대적인 작품까지 우수한 전 세계 유일의 모자이크 전문 교육·연구기관이다.

이탈리아 유명 성당들의 모자이

크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건축 내외부 장식은 물론 전시를 통해 큰 이슈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프리울리 작가들은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직접 전시장을 찾아 작품 제작을 시연하는 행사를 열여 찬사를 받았다.

(주)인스나인은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아시아 분교의 광주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 전 지역에서 교육생을 받아들여,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프리울리 아시아 분교가 광주에 들어서게 되면 광주 분야가 더욱 다양화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아시아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의 061-373-9922.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피에타 모자이크



프리울리주립 모자이크학교 수업 모습



모자이크학교 학생들의 작품

광주청년미술작가회원전 ▶12~25일 광주롯데갤러리

광주청년미술작가회(회장 위진수)가 오는 12~25일 광주롯데갤러리에서 28번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서승원·강요상·박은수·김혜철·위재환·이병선·도수연·조성태·안태영·한부철·조대원·이이남·조광석·최미연·최용석씨 등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청년 작가들의 열정을 선사한다.

한부철씨는 오래된 담장과 꽃의 조화를 화폭에

담았고, 안태영씨는 사실적인 묘사로 알사탕을 형상화했다.

지난 1987년 창립된 광주청년미술작가회는 청년 정신, 실현정신을 모토로 광주지역의 청년미술을 주도해왔다. 창립10주년 기념전 ‘우리의 성, 우리의 땅, 우리의 흥’ ‘동서청년미술제’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고 있다. 문의 062-221-1808.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병균 작 'The nature of Korea'

연극으로 만나는 ‘어린왕자’

극단 DIC, 20~28일 광주금남공원 앞 ‘공연 일번지’



극단 DIC은 오는 20~28일(평일 오후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까지 광주 금남공원 앞 소극장 공연 일번지에서 ‘어린왕자’를 공연한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행성 B 612에서 온 어린 왕자와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인 ‘나’의 만남으로 작품은 시작된다. 일곱 군데 행성을 떠돌여진 책의 구절구절은 읽을 때마다 어떤 깨달음을 준다. 여우와 어린왕자가 들려주는 ‘길들이는 것과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등 사랑과 소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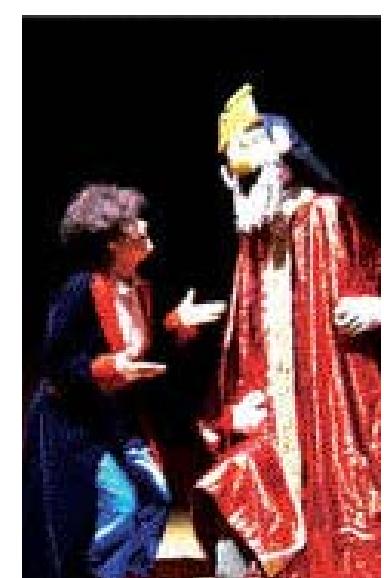
법정 스님 역시 자신에게 한 두권의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화엄경’과 ‘어린왕자’라고 할 정도로 ‘어린왕자’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어린왕자’가 연극으로 찾아온다.

정문희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현숙·이정진·손가라·장하솜씨 등이 출연한다.

연극을 보고 나면 ‘원작’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싶어질 듯하다.

티켓 가격 일반 1만2000원, 청소년 1만원, 4인 가족 예매 3만원, 15일



연극 ‘어린왕자’ 한 장면

까지 예매시 30% 할인. 문의 062-514-43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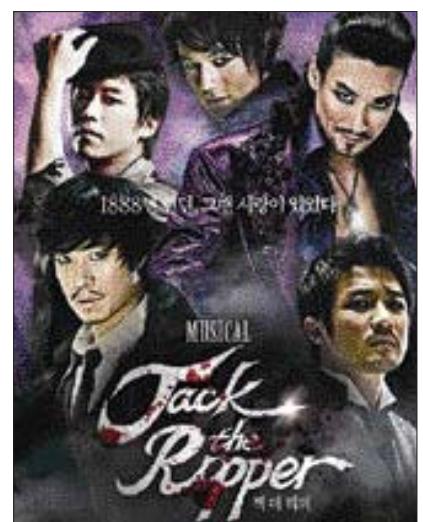
화제의 뮤지컬 ‘잭 더 리퍼’ OST 발매

한창 공연중인 화제의 뮤지컬 ‘잭 더 리퍼’ OST가 발매됐다.

체코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지난해 ‘살인마 잭’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초연된 작품으로 조연 당시부터 OST 발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마로 꼽히는 잭이 저지른 영구미결 사건을 소재로 그 속에 숨겨진 애매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잭 더 리퍼’는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와 회전식 세트, 짹짜인 스토리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한창 공연중인 ‘제이드·신성우·엄기준·윤준상·최민철·쏘나’ 등이 모두 참여한 이번 음반에는 올 공연부터 새롭게 추가된 ‘어찌만’, ‘회색 도시’를 포함, 모두 23곡이 실려 있다. 특히 5곡의 넘버는 같은 배역의 배우들이 다른 버전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발매 된 OST는 www.mmmusical.co.kr 를 구입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0여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한 오씨는 고풍출생으로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문암리 시편’과 ‘이 눈부신 강변에 꽂은 피고’ 등을 평했다.

/도서출판서석·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재동 광주시인협회장 시집 ‘인동기’ 폐내

오재동(69·사진) 광주시인협회장이 세 번째 시집 ‘인동기’(忍冬記)를 폐냈다.

‘시골길’ ‘고향길’ ‘망향가’ 3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는 생생감 있게 울려 퍼지는 농촌풍경을 담은 ‘봄의 문턱에서’ 등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일상적 삶의 세밀한 관찰이 돋보이는 80편의 시를 엮었다.

자연친화적인 삶의 서정이 스며있는 시편들은 역동적인 시적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조 등이 드러난다.

송수권 시인은 “오재동 시인의 시는 난해한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순리적인 삶을 그대로 진술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특별한 부담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했다.

Dinner Show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150,000 원/석**

• 대회장·대표관람: 10,000 원 / 예약: 10,000 원

• 푸드法院·주제한정 푸드·컨테이너 허용

구전해수육장 매일 운행

술로시티 증도

2010. 8. 20(금) 19:00

송대관

서울버스 매일운행

• 월영서울: 15,000원(주중)/18,000원(주말)

• 종도 1일 쇼핑권

일정	운행
서울버스-별도리도 푸드Court	20,000원
서울버스-오션동굴 푸드Court	20,000원
서울버스-술로동굴 푸드Court-증도	20,000원

수영장/풀/풀수영장: 10,000원/15,000원/18,000원